

축사 냄새 잡는 미생물 찾았다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악취 저감 미생물 처리로 복합악취 33% 감소 확인

순창군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축사 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미생물 소재를 발굴하고, 그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가축 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 과정에서 나오는 기체 상태의 물질로, 인근 지역에 불쾌감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등 다양한 처리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생물학적 방식은 물리·화학적 처리에 비해 설비 비용이 낮고, 생태적 안전성이 높아 최근 친환경 축산 관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군은 생물학적 접근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연구 결과, 진흥원은 총 16종의 악취 저감 미생물을 발굴했으며, 특히

SRCM 116907 균주는 실험실 수준에서 암모니아를 93.58% 감소시키는 탁월한 성능을 보였다.

실제로, 양돈 농가에 적용한 결과 복합악취가 33%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세부적으로는 암모니아 83%, 황화수소 55%, 메틸메르캅탄 95%가 각각 감소해, 해당 미생물이 축사 내 악취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SRCM 116907 균주는 커피박과 함께 발효했을 때 축분 악취 저감에 더욱 효과적이었으며, 해당 연구는 2024년 국내 학술지에 발표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순창군과 진흥원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순창군 맞춤형 축사환경 개선 미생물 소재 발굴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악취 저감 미생물 원천소재 확보, 퇴비 부숙화 연구, 축산 농가 연계 실증 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악취 분석, 설사 및 열변 개체에 대한 유해미생물 분석, 인근 수질분석 등 축사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축산 농가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mifre.kr>)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에 발굴된 악취 저감 미생물은 축산 농가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지속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이 지난 27일 오수면 오수리 392-11번지 일원에서 새롭게 건립된 오수면 행정복지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임실 복합 커뮤니티 공간 탄생

오수면 행정복지센터 준공… 행정·문화·복지·체육 등 기능 갖춰

임실군이 지난 27일 오수면 오수리 392-11번지 일원에서 새롭게 건립된 오수면 행정복지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심 민 군수, 양주영 군의회 부의장과 오수 출신인 이성재 전 의장이자 현 의원, 이외에 군의원, 박정규 도의원, 류관승 임실경찰서장, 유요선 임실교과장, 이재문 농협 임실군지부장 등 유관기관 및 지역 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추진 경과보고, 인사말 및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물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한 오수면 행정복지센터는 국비 41억원, 군비 84억원 등 총 12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 3월 공사를 시작으로 올해 2월 사업을 완료했다.

새로 지어진 오수면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905㎡ 규모로 지상 1층은 민원실, 2층에는 마추점공간, 마추공간, 방음공간, 동아리실, 3층에는 다목적체육실, 헬스장, 4층은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독서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임실군의 대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행정과 문화, 복지, 체육을 함께 아우르는 최고의 시설로 건립됐다.

또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0대 규모의 주차장도 함께 조성됐다. 이번엔 준공된 행정복지센터에는 면청사,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등 다목적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주민들의 소통·복지 공간을 물론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수면은 교과서에도 실린 만큼 유명한 오수 의견, 총견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군은 새로운 개념의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함께 이곳을 1,500만 반려인들의 성지로 만들어가고 있다.

반려동물지원센터와 캠핑장, 의견관광지 정비, 펫 추모 공원 등 반려견 인프라를 구축한 데 이어 180억원 규모의 세계명경테마랜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우리나라 대표 반려동물 대축제인 거든날 제4회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임실N페스타 개최도 앞두고 있다.

심 민 군수는 "행정복지센터가 준공되기까지 그간 불편함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오수면 주민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 및 민원인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신인선수단,임실서 전지훈련

지난 9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전지훈련을 위해 임실군을 방문한 대한장애인 배드민턴협회 신인선수단(감독 장형일) 10명이 임실군 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장)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했다.

앞으로 신인선수단은 전지훈련을 위해 임실군을 찾아 5월(2차), 6월(3차) 총 3차례(55일간)에 걸쳐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지훈련을 위해 꾸준히 임실을 찾는 선수단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임실군은 지역 스포츠 발전과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체육기반 시설 및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임실군배드민턴협회 정해영 회장과 지역 내 유소년 도민체전 선수들이 삼비군과 함께 합동 전지훈련을 진행하며 임실군 전지훈련 유치 노력에 힘을 보탰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주의 당부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웅재)는 어린이들이 개학 이후 실내 공동생활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노출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례적으로 학령기 소아·청소년이 유행을 주도하거나, 학기 중 발생이 증가하였다가 방학 기간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는 호흡기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백일해 등이 있다.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염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년 봄(4월~6월)에 환자 발생이 많으며, 단체생활을 하는 학령기 어린이들에게 발생 빈도가 높다.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정밀 기간에는 등원·등교(학원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 시기가 되었거나 누락된 접종이 있다면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옥정호 벚꽃축제로 만나는 특별한 미식 여행

임실군, 내달 5-6일 소머리국밥·치즈봉어빵 등 먹거리 가득

꽃이 만개하는 4월, 임실군의 봄 대표 축제인 2025 옥정호 벚꽃축제가 내달 5일부터 6일까지 옥정호 출렁다리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아름다운 벚꽃길과 다양한 문화 공연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의 미각을 사로잡을 특색 있는 먹거리가 가득해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먹거리로는 소머리국밥, 섬진강 다슬기 수제비, 임실N치즈로 만든 치즈봉어빵과 치즈떡볶이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축제장 곳곳 주전부리 부스와 푸드트럭이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출렁다리 인근에 옥정호 한우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신선한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으며, 한우, 불나전골, 육회비빔밥 등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군은 옥정호 벚꽃축제를 앞두고 방문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주차장 확보 및 셔틀버스 증편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관광객들의 주차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추가로 운암면 쌍암리 538번지 일원을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한다.

또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암면 쌍암리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증편하여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25인승 버스 27대를 운행한다.

더불어 임실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주차 안내 및 교통 통제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춘향골 햇감자’ 출하 한창

남원시 금지면 일대(송동, 수지 포함)에서 생산되어 2월 말 첫 출하한 춘향골 햇감자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센터)를 통해 소비자에게 본격 공급되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기후조건이 좋아 하우스 한 동당 평균 100상자 이상의 수확이 있어, 현재 출하 가격은 최상품의 경우 20kg들이 박스당 8만원 이상, 평균 6만 5천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가을에 수확한 저장감자에 비해서는 2~3배 높은 가격이다.

금지면 일대는 퇴적 평야지 미사 토양으로 배수가 잘돼 감자 생장에 좋고, 농민들이 오랜 경험과 기술 축적으로 아삭한 식감이 뛰어난 품질 좋은 감자를 생산하고 있어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대형마트 등으로 출하되고 있다.

또한, 시설감자 씨종자의 경우 남원농업기술센터와 씨감자영농조합이 생



산한 종자로, 지리산권역인 문봉, 인월, 아영 지역에서 재배되며 강원도산 감자 등 여타 다른 감자와 달리 휴면이 짧고 품질이 좋아 겨울철에도 햇감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루고 있어, 관내 시설재배 농가들의 큰 선호를 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시아 대표 국제대회로 자리잡은 '2025 남원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회'가 오는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7일간 열린다.

남원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고, 남원시체육회와 대한롤러연맹이 주최하며, 전북롤러연맹과 남원롤러스포츠연맹이 주관한다.

올해 1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일 본, 러시아, 대만, 싱가포르, 중국, 홍콩, 호주 등 총 12개국에서 1,200여 명의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여 국제대



회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다양한 국가의 선수단이 방문해 국제대회로서 입지를 확고히 한 남원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회는 인구 8만의 소도시 남원이 국제적인 롤러스포츠 메카로 발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